

강남 아파트 얼마나 떨어졌나 봤더니

잠실 주공5 1500~3000만원 ↓
대치동 은마 최대 7500만원 ↓
동작 아크로리버 4000만원 ↓

서울 아파트 매매가 0.03% 상승
주요 재건축 단지는 0.12% 하락
송파 주공5단지 최대 3억 떨어져
전세는 전반적 매물품귀 현상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담은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강남권 아파트의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주공5단지 아파트는 지난 1월 전용면적 76㎡가 3억원 떨어진 가격에 팔리는 등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2월 14일 기준)은 0.03% 상승했다. 재건축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주요 단지가 하향 조정되면서 0.12% 떨어졌다.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송파(-0.15%) ▲동작(-0.05%) ▲강남(-0.04%)은 떨어졌다. 송파는 잠실동 주공5단지과 레이크팰리스, 신천동 잠실파크리오가 1500만~3000만원 하락했다. 동작은 2018년 입주한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이 4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강남은 대치동 은마, 한보미도맨션1·2차 등 재건축 단지가 500만~7500만원 떨어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은 3.3㎡당 평균 매매가 5402만원, 전세가 2362만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잠실 주공5단지 아파트는 현재 전용면적 76㎡ 매매가 20억원, 82㎡가 21억원 등에 매물이 나왔다. 레이크팰리스는 전용면적 84㎡ 매매가 17억7000만원, 59㎡가 15억5000만원이다. 잠실엘스는 전용면적 85㎡의 매매가 19억9000만원이다.

거래도 줄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아파트 1월 거래량은 130건이다. 12월 400여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 잠실 대표 재건축 아파트인 주공 5 단지는 지난달 전용면적 76㎡가 18억 8000여만원에 팔렸다. 12월 21억5000만원의 최고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개월 사이 3억원 가까이 떨어진 셈이다.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매물은 있어도 현재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주공5단지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18건, 1월 1건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대치동은 3.3㎡당 평균 매매



작년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다. 서울 잠실 주공5단지 아파트. /연합뉴스

가 6299만원, 전세 2600만원으로 시세가 형성됐다.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는 전용면적 84㎡가 22억 5000만원, 76㎡가 20억원에 매물이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84㎡가 23억 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1월 22억원에 팔리는 등 1억 5000만원이 떨어졌다. 강남구 아파트의 12월 거래량은 367건, 1월은 65건이 신고됐다. 그 중 은마아파트는 12월 6건, 1월 1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세의 경우 매물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송파(0.15%) ▲강서(0.12%) ▲강북(0.10%) ▲성북(0.08%) ▲강남(0.07%) ▲강동

(0.07%) ▲마포(0.07%) ▲서초(0.07%) 순으로 올랐다.

송파구는 잠실동 잠실엘스, 주공5단지,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오금동 올림픽파크센트레빌 등이 500만~2000만원 상승했다. 강남구는 역삼동 역삼푸르지오, 역삼e편한세상, 개나리래미안과 논현동 아크로힐스논현이 500만~2500만원 올랐다.

전세시장은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봄 이사철 수요가 움직이면 서 직주근접, 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850가구 모집

LH, 올 첫 공고... 자격 요건 완화
청년 24일, 신혼부부 17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85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63가구는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올해부터 입주



자격이 개편돼 소득내역과 보유자산만을 기준으로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임대보증금최소금액을 100만원으로 책정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였으며,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유형(다세대주택 등) 2764가구, II 유형(아파트·오피스텔 등) 2923가구는 기존 공급 대상인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뿐만 아니라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까지 확대 공급한다.

I 유형은 II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II 유형은 I 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 유형은 오는 24일, 신혼부부 유형은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정연우 기자

신규고객 주식수수료 평생무료 기회

NH투자증권 나무

내년 1월까지 이벤트 연장

NH투자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나무는 오는 2021년 1월까지 최초 신규 고객 대상 국내주식 위탁수수료 평생무료(유관기관제비용 제외) 혜택을 계속해서 제공한다.

NH투자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라면 나무 앱에서 계좌 개설 시 자동으로 국내주식 위탁수수료 평생무료 혜택이 적용된다.

해당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손엄지 기자



모바일증권 나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BS 증권사 6곳, 최대 6000억 메자닌투자 확대 결의

사모펀드시장 발전·투자자보호

프라임브로커업무(PBS)를 영위하고 있는 국내 6개 대형 증권사가 건전한 기업의 전환사채(CB) 등 메자닌 투자를 확대기로 자율 결의했다. 투자규모는 약 6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 사태로 발생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결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4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자기자본 규모순) 등 종합금융투자회사(중투자)로서 PBS를 수행하는 증권사 사장단 회의를 통해 “건전한 기업의 메자닌 자산의 유동성 확보방안에 대해 논

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라임 사태’로 중소기업 CB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시장이 위축되고, 만기 도래에 따른 발행기업의 자금유동성 위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6개 중투사는 기업의 CB 등 메자닌 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사모펀드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다.

각 사별 최대 1000억원, 업계 합산 6000억원 수준까지 투자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해당 예산은 메자닌 자산의 신규 또는 차환 물량 심사를 거쳐 시장가로 매입하는데 사용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메자닌 등 투자예

소정책과 중소기업 등 기업금융 투자활성화 정책에 일조할 것”이라며 “중투사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책임감 있는 결단으로 건전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원활화와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한 중투사는 “향후 모험자본 공급확대를 통한 건전선 규제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이 수반되고, 발행어음에 대한 인가가 조속히 허용된다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행어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인가순)이다.

/손엄지 기자 sonumij301@

대신증권 ‘히스토리 시스템’ MTS기술 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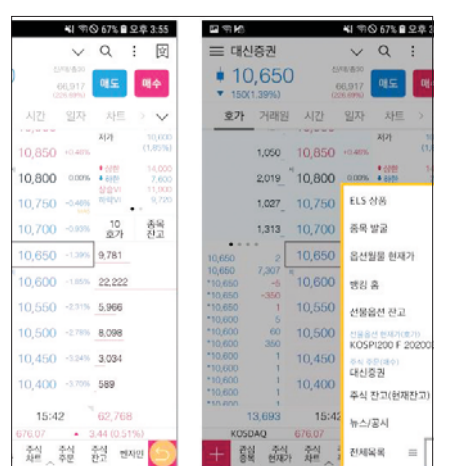
최대 20개 이전 사용화면 한눈에

대신증권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기능을 개선한 자체 기술 특허를 등록했다. 사용자가 선택했던 이전화면을 여러 단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한번에 접근할 수 있는 ‘멀티 히스토리 시스템’이다.

해당 특허 기술은 최대 20개의 이전 사용화면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빠른 검색과 이동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MTS의 경우 5단계 전의 사용화면으로 이동하려면 디바이스의 Back키를 5번 누르거나 해당화면의 메뉴를 찾아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대신증권 MTS ‘멀티 히스토리 시스템’ 기능을 이용하면 주문하기 전에 현재가, 차트, 잔고 등 다양한 화면을 수시로 이동하며 정보를 확인할



대신증권 ‘멀티 히스토리 시스템’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대신증권의 MTS인 사이보스터치와 크레온모바일을 통해 서비스 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신증권을 검색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

/손엄지 기자